19금 코미디 영화 '바람 바람 바람' 흥행 | 배우 이엘의 재발견

섹시미+연기력…출연작마다 잭팟

드라마 '도깨비'등서 강렬한 인상
연극 '아마데우스' 카리스마 철철
영화 '바람…'에선 절제된 섹시미

어떤 역을 맡아도 섹시한 매력을 드러내는 배우 이엘이 출연작마다 잭팟을 터트리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를 넘어 이젠 연극 무대로까지 그 실력과 매력을 이어간다.

이엘이 첫 주연영화 '바람 바람 바람'(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을 통해 흥행의 단맛을 만끽하고 있다. 5일 개봉한 영화는 상영 2주째에 접어들어 박스오피스 1위를 재탈환, 10일까지 누적관객 70만 명에 다다랐다. 오랜만에 '19금 코미디'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꾸준한 관객 동원에 성공한 영화는 100만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영화에서 이성민과 신하균, 송지효와 나란히 주연으로 나선 이엘은 개성이 확실한 외모와 섹시한 매력, 탄탄한 연기력까지 겸비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함께 주연한 배우들에 비해 연기 경험과 경력이 짧은 편이지만 특유의 매력으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약을 펼친다. 이성민과 신하균 사이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그는 평소 필라테스로 단련한 'S라인' 몸매를 과시하며 관객의 시선을 또 한 번 붙잡는다.

이엘은 출연하는 작품마다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내보이는 배우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방송한 tvN 드라마 '도깨비'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인지도를 넓혔고 이어 참여한 '블랙'과 '화유기'를 통해 인기를 높여갔다.

이엘이 처음 주목받은 계기는 2015년 이병헌과 함께 한 영화 '내부자들'이다. 지금도 명대사로 기억되는 "모히토에서 몰디브 한 잔"이라는 대사가 바로 둘 사이에서 오간 대화의 한 토막. 당시 과감한 노출 연기로도 대중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출연한 드라마들의 연이은 성공에 이어 이번 '바람 바람 바람'을 통해 스크린 주연으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내부자들' 제작진과 다시 손잡고 '바람 바람 바람'에 나선 이엘은 "그간 짙은 화장, 야한 의상을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화장을 덜어내고 자연스러운 의상으로 인물을 표현하려 했다"며 "일부러 섹시해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간의 영화와는 다르게 접근하려 했다"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이병헌 감독 역시 "이엘을 처음 만난 순간, 우리가 알던 강렬한 이미지가 아니란 걸 알았고 그가 가진 복합적인 느낌이 좋았다"고 했다. 배우와 감독이 나눈 다양한 대화와 변화 시도가 결국 '바람 바람 바람'의 흥행 순풍에 밑거름이 된 셈이다.

이엘은 현재 연극 무대에도 오르고 있다. 이달 29일까지 서울 광림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연극 '아마데우스'에서 여주인공 콘스탄체 베버 역으로 출연한다. 상대역 조정석, 김재욱과 호흡을 맞추는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영화 '내부자들'부터 드라마 '도깨비'를 거쳐 '바람 바람 바람'까지 특유의 개성과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배우 이엘. 사진제공 |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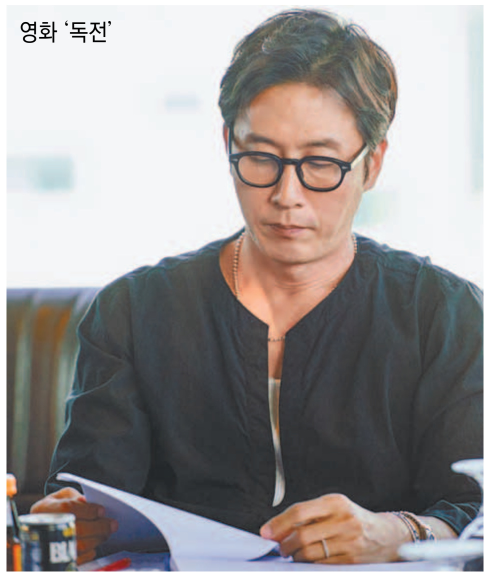
#해시태그 컷

금발의 한예슬 파격 변신

연기자 한예슬의 파격적인 변신이다. 샛노랗게 금발로 염색한 헤어스타일을 공개했다. 한예슬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생긋 미소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패셔니스타답게 스타일링도 눈길을 끈다. 꽃무늬 카디건과 휴대폰 케이스로 레드의 조합을 보여준다. 또 벨트에 부착된 빅 사이즈의 장식도 센스 만점이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동아 #한예슬 #금발 #레드 #깔맞춤

영화 '독전'



리턴, 故김주혁

주연 유작 '독전' 내달 24일 개봉
마약 거물 캐릭터…강렬한 인상

다시, 김주혁이 온다.

김주혁이 주연한 유작 영화 '독전'(감독 이해영·제작 용필름)이 5월24일 개봉한다. 올해 초 '흥부:글로 세상을 바꾼 자'에 이어 고 김주혁의 생전 모습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다.

'독전'은 아시아 시장의 지배적인 마약 조직을 둘러싸고 벌이는 이야기. 조직을 이끄는 이들과 경찰의 추격전을 그린 영화에 대해 제작진은 "독특한 스타일"로 그려냈다고 밝혔다.

김주혁은 아시아 최대 마약 시장의 거물 캐릭터를 맡아 연기를 펼쳤다. '로맨틱 가이' 혹은 사랑에 서툴고 순진한 인물에서 벗어나 '공조'와 '흥부:글로 세상을 바꾼 자'로 이어지는 일련의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10일 공개된 영화 포스터 속에서도 김주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선을 모은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촬영에 집중했던 까닭에 '독전'이 팬들에게 남기는 의미는 크다. 앞서 개봉한 '흥부:글로 세상을 바꾼 자'가 흥행에 실패하고 연출자인 조근현 감독의 '미투 운동' 가해자 논란 등으로 관객에게 실망을 안겨준 뒤여서 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독전' 제작진과 차승원을 비롯한 김성령, 조진웅, 류준열, 박해준 등 주연급 배우들은 19일 제작보고회 무대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연기를 펼친 고 김주혁에 대한 추모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상큼함으로 무장한 4월 걸그룹 대전

EXID·트와이스 등 컴백 러시
발랄하고 화사한 이미지 변신

4월, 싱그러운 봄기운이 가득 차면서 가요계도 걸그룹 '천하'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신인부터 국내 '원톱' 걸그룹까지, 살랑대는 봄바람에 따라 속속 복귀하고 있다. EXID로 시작된 '걸그룹 복귀행렬'은 오마이걸, 트와이스에 이어 러블리즈, 다이아 등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저마다 발랄하고 상큼한 매력을 앞세워 선의의 경쟁을 시작한다. 이미 9일 컴백과 동시에 음원차트를 점령한 트와이스를 비롯해 당분간 음원차트와 음악 순위프로그램에서는 걸그룹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1990년대 감성으로 돌아온 EXID가 그동안 고수했던 섹시 콘셉트에서 탈피해 눈길을 끌었다면, 트와이스는 봄 햇살만큼이나 싱그러운 매력을 가득 머금었다. 사랑을 잘 모르는 소녀들의 감성을 노래에 담아 또 한 번 '불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시작한 오마이걸의 유닛 '오마이걸 반하나'도 신비로운 이미지를 내려놓고 동화 속 요정을 연상시키는 상큼한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다.

23일 컴백을 앞둔 러블리즈도 그룹 이름만큼이나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돌아온다. 네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치유'는 벚꽃처럼 화사한 멤버들의 매력으로, 듣는 이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겠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이달 말 컴백을 앞둔 다이아도 현재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다이아는 히트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3년 만에 다시 손잡고 신곡을 내놓는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다이아 멤버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게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데뷔 3~4년차들의 선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말 신인 걸그룹도 2팀 데뷔한다. 포미닛, CLC 등을 배출한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아이들'이라는 신인 걸그룹을 선보인다. '프로듀스 101' 시즌1에서 뛰어난 랩과 춤 솜씨로 화제를 모았던 전소연이 소속된 그룹이다. 또 KBS 2TV 오디션프로그램 '더유닛'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 '유니티'도 이달 말 데뷔가 목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샤크라 출신 보나, 트로트 가수 변신

새 음반 '김천로맨스'로 컴백

90년대 인기 걸그룹 샤크라에서 활약했던 보나(최현정)가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다.

샤크라 해체 이후 중국에서 활동해온 보나는 최근 '김천로맨스'를 발표하고 트로트 가수로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보나는 2002년 발표된 샤크라 3집에 합류하면서 가수로 데뷔했다. 이듬해 4집에도 참여했지만 2005년 5집 제작이 무산되면서 팀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보나도 자연스럽게 팀을 떠나게 됐다.

이후 보나는 전속계약 문제로 한동안 공백을 갖다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2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보나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세 장의 싱글을 발표했던 보나는 새로운 기회를 엿보던 중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게 됐다.

보나가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처음 발표한 '김천로맨스'는 씨스타의 '나혼자', 다비치 '헤어졌다 만났다', 유주&로꼬 '우연히 봄' 등을 히트시킨 똘아이박과 다비치, 빅스, 메드타운 등과 작업한 비락(B-Rock) 그리고 제이린(J-lin)이 함께 작업했다. 경북 김천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담았다.

'김천로맨스'는 정통 트로트와 다르게 브라스, 기타 그리고 하우스 리듬이 어우러진 세미트로트 장르로, 신나는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보나의 섹시한 보이스로 잘 표현됐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이 영화 ⓐ 플라스틱 차이나

중국 폐비닐 수입 중단 계기
세상을 바꾼 다큐영화 한 편

중국에서 조용하게 만들어진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른바 '쓰레기 대란'을 몰고 온, 재활용 문제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폐비닐과 종이 쓰레기 수입 중단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뒤 연말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무심코 재활용한 폐비닐이 국내서 처리되지 않고 중국에 '수출'됐다는 사실이 던진 놀라움도 잠시. 재활용 수거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다툼이 벌어지고,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 호소도 줄을 잇는다. 중국이 폐비닐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만큼 이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중국을 쓰레기 수출국으로 삼은 미국과 유럽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이 쓰레기 수입에 있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데는 2016년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가 촉발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내외 공통된 의견이다. 급속한 경제성장 가운데 못내 감추고 싶은 '치부'가 이 영화를 통해 낱낱이 공개된 뒤 비난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중국은 쓰레기 수입 거부를 결정했다.

81분 분량의 '플라스틱 차이나'에 담긴 중국인들의 삶은 충격 그 자체다. 우리가 매일 환경 보호를 위해 열심히 재활용하는 쓰레기의 '마지막 모습'을 비춘다. 극의 배경은 중국 산둥성의 한 시골 마을.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싣고 온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골마을을 분주히 드나들고,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어린 아이들은 플라스틱을 손으로 직접 찾아낸다. 중국은 이를 녹인 뒤 알갱이로 만들어 다시 판매한다. 매일 쓰레기산에서 밥 먹고, 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린다.

'플라스틱 차이나'는 2017년 선댄스영화제에서 소개돼 크게 화제를 모았고 이후 중국 내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해리 기자